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20**  
MAR 20 2020

발간년월 2020년 3월 20일 (통권 제120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러시아 정부, 시베리아 강 운송 인프라 개발 추진
- 러시아, 북방 물류 체인을 위한 新항만 계획 발표
- 러-OPEC 원유 감산 실패 후 국제유가 하락
- 우즈벡 재생에너지 사업에 외국투자자 관심 증대
- 키르기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국제도로 보수공사 차질
- 북한, 코로나 19 대비 초특급 방역조치 시행

## 주요 통계

- 2019년 11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주요 동향



# 러시아 정부, 시베리아 강 운송 인프라 개발 추진

그림 1. 제5차 국제컨퍼런스 북극-2020



## ■ 지난 2월 말 ‘북극: 국제프로젝트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주제로 제5차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알렉산더 쿠루티코프(Alexander Krutikov) 차관은 최근 시베리아 강의 수송 인프라 확장 계획을 발표함
- 이 컨퍼런스에서 연방 및 지방정부 기관, 대학교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극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 산업, 교통, 물류, 광물자원개발, 관광업 발전, 자연보호, 북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중소기업 육성 등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사업을 논의함

## ■ 러시아, 야쿠티야 지역 북극 개발위해 해상 운송로 확보 추진

- 쿠루티코프 차관은 “러시아 원주민이 거주하는 북극 지역을 개발할 것이라며, 국가 교통 시스템과 종종 격리되기도 하는 이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나바르(Anabar), 레나(Lena), 야나(Yana), 인디기르카(Indigirka) 및 콜루마(Koluma) 강에서 준설 작업이 계획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야쿠티야 지역의 식량 공급 비용 절감을 목표로 무역 및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준설과 해상운송로 확보는 야쿠티야의 북극 개발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함
- 이 강(안나바르(Anabar), 레나(Lena), 야나(Yana), 인디기르카(Indigirka) 및 콜루마(Koluma)) 유역에는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자원개발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 야쿠티야는 3,083,523km<sup>2</sup>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치정부이며, 북반구에서 가장 기온이 낮아 극한의 기후로 유명하고, 오브강 및 레나강은 북해 항로인 북 시베리아해로 흐르고 있음

진희권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전문연구원  
(hljin@kmi.re.kr/051-797-4766)

김임지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원  
(umjikim@kmi.re.kr, 051-797-4776)

## 참고자료

- <https://dredgingandports.com/news/2020/russian-government-plans-establishment-of-logistics-network-on-siberian-rivers/> (2020.3.17. 검색)
- <http://ysia.ru/minvostokrazvitiya-oboznachilo-prioritety-v-arkticheskoy-zone-yakutii/> (2020.3.17. 검색)
- <http://arctic.s-kon.ru/novosti/yakutiya-prinyala-uchastie-v-mezhdunarodnoj-konferentsii-arktika-2020/> (2020.3.19. 검색)

# 러시아, 북방 물류 체인을 위한 新항만 계획 발표

## ■ 新 북극해 운송 통로(Northern Sea Transport Corridor) 검토 중

- 러시아의 북극 개발은 국가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임. 현재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LNG, 석유, 석탄 운송 외에도 NSR을 통한 국제 및 국내 화물의 정기적인 운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극 광물 자원 개발을 통한 물자도 북극해를 통해 운송되고 있음
- 로사토크의 NSR 및 해역 개발부서장(Head of Department for Development of NSR and Coastal Territories)인 맥심 쿨링코(Maxim Kulinko)는 IAA 포트뉴스(Information & Analytical Agency PortNews)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개념인 ‘북극해 운송 통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함
- 쿨링코는 이 새로운 통로는 북극해 항로를 보완하고, 러시아의 북극해 경제 발전을 위한 모델이라고 덧붙임
- 새로운 ‘북극해 운송 통로’는 무르만스크(Murmansk) 지역 북서쪽에 있는 리이나하마리(Liinahamari)에 건설될 예정임

그림 2. 러시아 新 북극해 운송 통로 건설 지역인 리이나하마리(Liinahamari)



자료: wikipedia commons

## ■ 리이나하마리(Liinahamari)의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할 예정

- 무르만스크는 항만 활동에 적합하지만, 항구 인프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콜라 만(Kola Bay)은 많은 선박 교통, 큰 조수간만의 차, 해군기지 존재 등의 다양한 단점이 존재함

- 하지만 리이나하마리 지역은 최대 20m의 자연적 수심, 비동결 수역, 해군기지 부재, 적은 선박 교통량 등의 항만 활동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밀집된 주거지역도 없을 뿐더러 도로, 네트워크,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 新 북극해 운송 통로 2024년 완공 예정

- 러시아는 북극해 항행 선박에서 재래 선박으로의 환적을 위한 서부 게이트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에 있음. 해당 터미널은 극동 항구로부터 NSR로 통과되는 화물과, 연안 화물 모두를 서부로 운송할 예정이고, 계획 중인 두 번째 터미널은 북극의 광물 자원 사업을 위한 화물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됨
- ‘북극해 운송 통로’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올해 완료될 예정이고, 완공은 2024년 2분기 될 예정임. 러시아 정부는 2024년 NSR 물동량이 통과화물을 포함하여 8,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한편,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리이나하마리 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그린 본드(Green Bond) 발행을 통해 해당 사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전준혁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인턴  
(jeonjh0211@kmi.re.kr/051-797-4941)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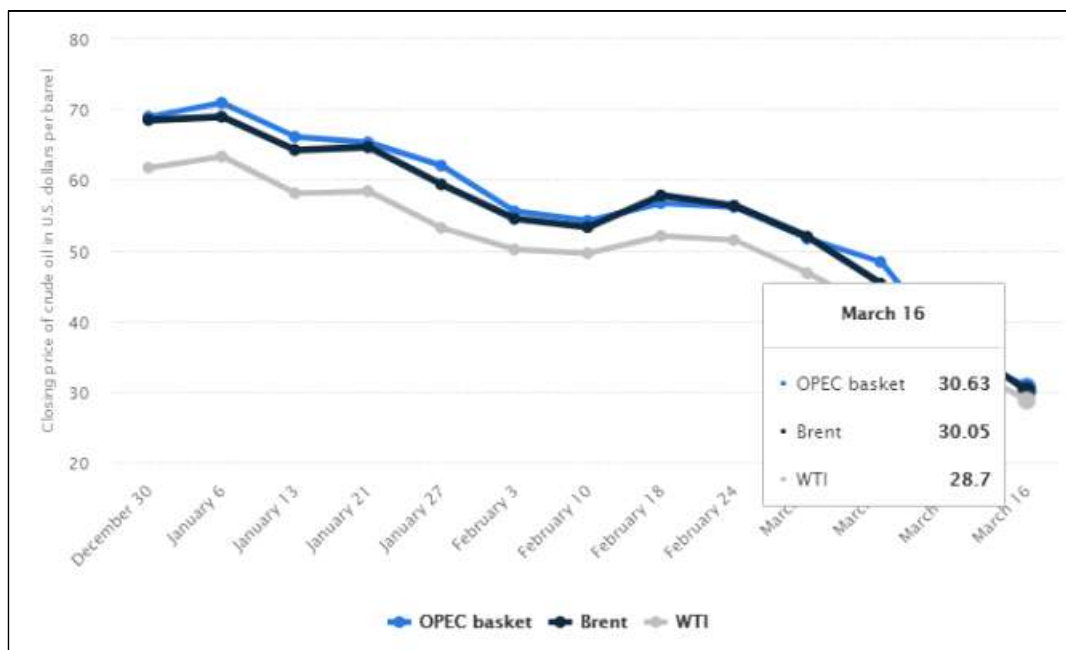
- <https://www.maritime-executive.com/blog/new-port-planned-for-russia-s-growing-northern-logistics-chain>(2010.3.17.검색)
- [http://hubertbrooks.com/6\\_9HubertBrooks\\_Polesearch.html](http://hubertbrooks.com/6_9HubertBrooks_Polesearch.html)(2010.3.18.검색)

## 러-OPEC 원유 감산 실패 후 국제유가 하락

### ■ 러-OPEC 원유 감산 협상 결렬 이후 국제유가는 급락하고 있음

- 2020년 3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178차 석유수출국기구(OPEC) 임시총회와 제8차 OPEC+ 각료회의에서 유가의 안정과 공급량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원유 감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회의에서는 감산 기한 연장과 하루 150만 배럴(bpd)의 추가 감산 방안이 논의됐는데 러시아는 OPEC의 원유 추가 감산 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됨
- 또한 러시아는 코로나 19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합의(하루 170만 배럴 감축)를 연장할 것을 OPEC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함
- 이번 협상 결렬로 3월 16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30달러, WTI원유는 배럴당 28달러로 급락함

그림3. 브렌트, WTI 월별 유가 추이 ('19.12~'20.3)



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26017/weekly-crude-oil-prices/> (검색일: 2020.3.17.)

### ■ 주요 산유국들의 '유가 전쟁'으로 인한 공급 초과로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이 보임

-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에 실패한 후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원유 증산 계획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도 증산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러한 공급량의 증가는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원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2020년 3월 18일 예정됐던 사우디와 러시아 공동 주관의 공동감산점검기술위원회(JTC) 실무회의역시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알렉산더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OPEC과 비 OPEC 산유국 간 석유 생산량 협상은 더는 없다고 밝힘
- 이번 위원회가 취소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OPEC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허재영 연구원 국제협력·ODA센터**

(hgy1@kmi.re.kr/051-797-4904)

**최용원 현장실습생 국제협력·ODA센터**

(odacenter@kmi.re.kr/051-797-4353)

---

## 참고자료

- a) <https://www.euractiv.com/section/global-europe/news/russian-ministry-oil-firms-to-meet-after-opec-talks-collapse-and-prices-plunge/> (2020.03.17. 검색)
- b)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news/russia-to-opec-deeper-oil-cuts-wont-work/> (2020.03.17. 검색)
- c) <https://www.euractiv.com/section/global-europe/news/russian-ministry-oil-firms-to-meet-after-opec-talks-collapse-and-prices-plunge/> (2020.03.17. 검색)
- d) [- 6 -](https://www.reuters.com/article/oil-opec-jtc/update-1-opec-march-18-technical-meeting-unlikely-to-go-ahead-sources-idUSL8N2B53LZ(2020.03.17. 검색)</a></li></ol></div><div data-bbox=)



## 우즈벡 재생에너지 사업에 외국투자자 관심 증대

### ■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을 많이 보유한 자원부국이지만, 높은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에너지 저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4GW에서 15.8GW까지 확대할 계획임. 이를 통해 2019년 12%에 그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 19.7%까지 확대할 예정임
- 특히, 총 전기 에너지 생산량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10%에서 15%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며, 부분별 발전용량은 태양열발전 5,000MW, 풍력발전 3,000MW임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산업개발에 필요한 자원 부족 문제를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자체 자원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국제금융공사(IFC)와 협력하여 민관협력사업(PPP)형태의 태양광 발전(Scaling solar I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국제금융공사(IFC)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수석 컨설턴트(lead consultant)로서 입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과정을 지원할 예정임
- 예컨대 우즈베키스탄 전력공사는 2019년에 국제금융공사(IFC)의 지원으로 나보이(Navoi) 지역에 100MW 태양광발전소 입찰 공고를 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투자자 선정은 2019년 10월 4일에 발표됐음

### ■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신규 전력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증가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 에너지 국영기업인 마스다르(Masdar)는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주 태양광발전소 건설 입찰에서 1kW당 2.679센트의 단가로 태양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해 최종 낙찰됨
- 또한 2020년 3월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으로 남부 수르칸다리야(Surkhandarya)지역에 20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함

하재영 연구원 국제협력·ODA센터  
(hgy1@kmi.re.kr/051-797-4904)

---

#### 참고자료

a)<https://www.saurenergy.com/solar-energy-news/uzbekistan-sees-high-foreign-interest-in-its-renewable-energy-push> (2020.03.17. 검색)

# 키르기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국제도로 보수공사 차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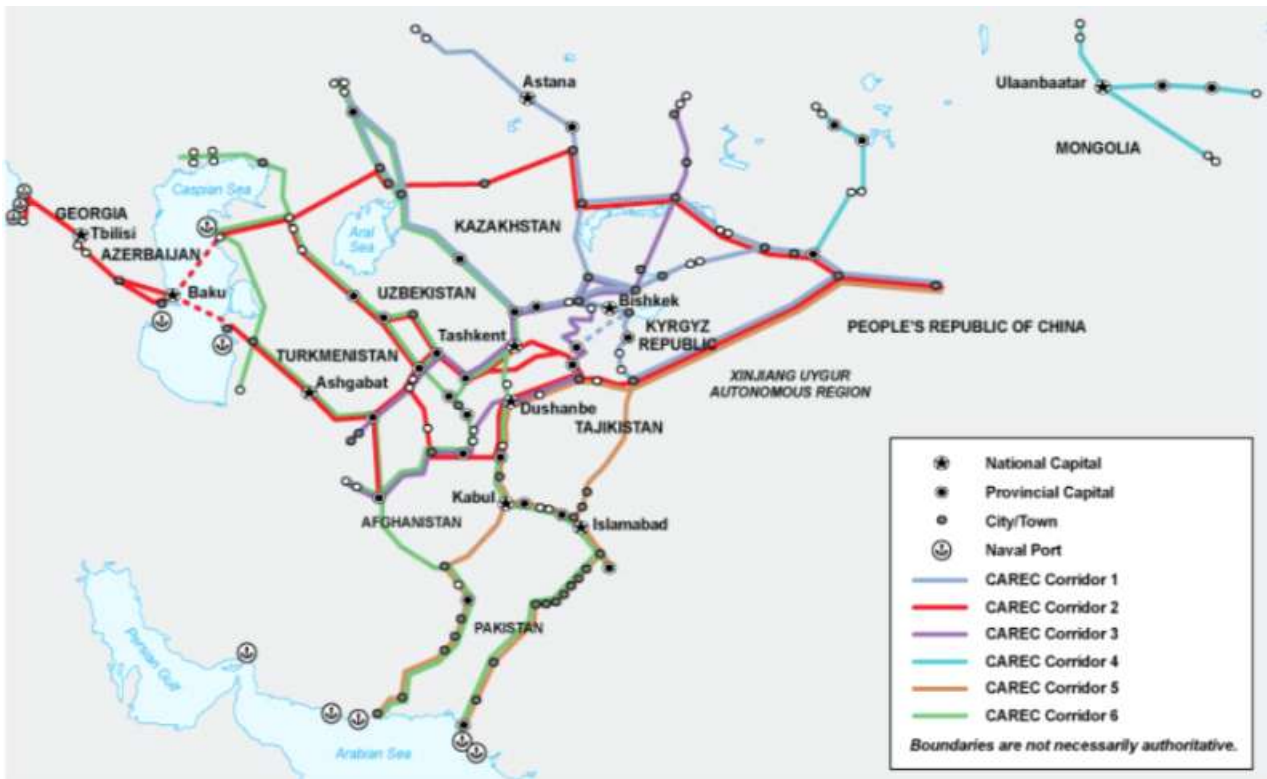
## ■ 키르기스스탄 교통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비슈케크-카라 발타 (Bishkek-Kara Balta) 구간 도로 보수작업을 중단 및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 타가이 알림바예프(Tagay Alimbayev) 키르기스스탄 교통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투자사업그룹 관계 담당관은 스푸트니크(Sputnik) 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키르기스스탄 내 근무 중인 중국인 근로자 격리조치로 인해, 해당 구간 보수작업 및 조명 및 보도 설치가 2021년으로 미루어졌다고 밝혔다
- 2017년 시작된 보수작업은 벨로보드스크(Belovodsk) 시와 소콜룩(Sokoluk) 마을 간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도로 조명시설 및 보도는 완공되지 못한 상황이었음

## ■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중국 주도의 유라시아 대규모 도로인프라 구축 사업인 CAREC프로그램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프로그램은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대규모 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으로서, 2001년 그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19년까지 345억 달러(한화 약 42조 7,3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지원받아 도로인프라 및 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음.
- 현재 11개국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국은 키르기스스탄과 중국 외에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골이 포함되어 있음
- 비슈케크-카라 발타 구간 작업은 “CAREC 3 운송회랑 개선사업(비슈케크-오쉬Osh 고속도로 4단계)”의 일환으로서, 구간 길이는 사업 초기에 52.5km로 예상되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토목 공사비용 9,206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1억 달러(한화 약 1,2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음. 하지만 사업 진행 중 비용이 약 1억 1,500만 달러로 초과 비용이 발생하자 사업 구간 또한 45.1km로 축소된 바 있음
- 초기 계획보다 축소된 45.1km 공사는 중국 철도공사(CRC)에서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중국철도 제 5국 집단 유한공사(China Railway No.5 Engineering Group)가 주도하고 있음
- 한편 키르기스스탄 도로교통부는 그 외에도 추이 주(Chuy Province)에 위치한 노보파블롭카(Novopavlovka), 보예노-안토놉카(Voenno-Antonovka) 마을의 지방도로 개선사업 또한 계획하고 있음

그림 4. CAREC 국제운송회랑 개요



자료: [https://www.carecprogram.org/?page\\_id=20](https://www.carecprogram.org/?page_id=20)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참고자료

- <https://ru.sputnik.kg/society/20200317/1047428106/doroga-mintrans-kara-balta.html>(2020.3.17.검색)
- [https://www.carecprogram.org/?page\\_id=20](https://www.carecprogram.org/?page_id=20)(2020.3.17.검색)

# 북한, 코로나 19 대비 초특급 방역조치 시행

## ■ 북한,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각종 방역 조치 시행<sup>a)b)c)d)</sup>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1월 22일부터 관련 동향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남한과 미국, 유럽, 일본 및 전 세계의 확진자, 사망자 숫자를 거의 매일 보도하고 있음
- 1월 29일,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체계 전환을 선포하고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 도별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했음.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종합분과, 정치분과, 봉쇄 및 검역분과, 위생선전분과, 검열분과, 대외분과, 약무분과, 치료분과 등으로 구성
- 북한은 국경, 항만, 비행장의 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음. 2월 1일부터는 모든 외국인과 1월 13일 이후 입국자, 의심환자들을 격리 조치했으며, 2월 13일에는 이들의 격리 기간을 30일로 연장했음
- 진단 시약 및 위생용품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하수도과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진행했으며, 개인위생을 위한 주민 홍보도 대폭 강화했음
- ‘로동신문’에 따르면 2월 19일 현재 전국적인 ‘위생선전’ 활동에 연인원 69만 여 명의 보건 분야 간부들이 동원되었으며, 연 7396만 8천 여 명의 주민들이 이를 청취했다고 함

## ■ 김정은 위원장, 당 정치국 확대회의 열고 ‘초특급방역조치’ 지시<sup>e)f)g)h)i)j)</sup>

- 김정은 위원장은 2월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과 ‘초특급방역조치’를 지시
- ‘초특급방역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회의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 시행
  -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개학을 연기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을 당분간 중지하였으며,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 수입 물품에 대한 소독과 검사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 지도서를 제작 배포했음. ‘로동신문’에 따르면 항공, 선박, 열차, 자동차 등은 화물 적재 전 적재 공간과 차체, 화물의 포장 겉면에 대한 분무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국경 통과 지점이나 세관 통제구역, 항구의 야외 또는 화물 창고에 10일간 방치해야 함. 방치 기일 이후에는 수입 물자의 내부까지 모두 해체하여 엄격한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함.
  - 압록강, 두만강 등 국경지역의 수질검사와 소독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식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
  - 일부 화물선이 북한 내 항구에 격리되어 있으며, 이들 격리 선박의 오수가 영해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지시

-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하에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3월 17일 진행되었으며,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까지 완공할 것을 목표로 제시

## ■ 북한, 격리 해제 조치 진행하며 확진자는 없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미국 등 국제 사회는 북한 내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무게<sup>k))m)</sup>

- 북한은 모든 외국인과 외국인 접촉자들에 대해 30일 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1차 위험 대상(입국자)을 지정하고 이들과 접촉한 자들은 2차 위험 대상으로 규정해 40일간 격리했음. 이에 따라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격리 해제 조치 진행. 3월 13일 현재 380여 명의 외국인 중 290여 명이 격리 해제 되었으며, 강원도 1,020명, 자강도에서는 2,630명, 평안북도 990여 명, 평안남도에서 720여 명이 격리해제 되었음. 평안남도, 함경북도, 개성시 등에서도 격리 해제가 진행되었으며, 평양에서도 격리 조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상황이나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하지만 1차 위험 대상(입국자)들의 격리 기간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1차 위험 대상자들과 함께 격리 중인 2차 위험 대상자들은 격리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이에 따르면 1차 위험 대상자들에 대한 격리 기간은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차 위험 대상자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격리 해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1개월간의 의학적 감시 기간을 추가로 지정했음
- 3월 17일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 및 언론은 북한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거나 확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통일부는 3월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공식적인 확진자 발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WH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통보된 내용이 없다고 밝힘

진희권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전문연구원

(hljin@kmi.re.kr/051-797-4766)

## 참고자료

- a)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0764849-46008897/주도세밀한-작전과-지휘로-방역사업을-강하게-내밀/> (2020.3.16. 검색)
- b)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0677354-70720587/우리-나라에-절대로-들어오지-못하게-하기-위한-사업/> (2020.3.16. 검색)
- c)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1550292-136845387/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철저히-막기-위해-격리/> (2020.3.16. 검색)
- d)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2234291-273683932/순간도-방심하지-않도록-위생선전사업을-출기차게/> (2020.3.16. 검색)
- e)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2924838-52564543/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진행/> (2020.3.16. 검색)
- f)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3097057-164872538/초특급방역조치들을-더욱-철저히-더욱-엄격히/> (2020.3.16. 검색)
- g)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3097048-751137261/검사검역을-보다-강화하여/> (2020.3.16. 검색)
- h)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3270430-25854536/순간도-긴장을-놓치지-않고-방역사업을-강도높이/> (2020.3.16. 검색)
- i)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3703082-872930716/2중-3중으로-물샬틈없이/> (2020.3.16. 검색)
- j)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4481856-682115209/경애하는-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평양종합병/?t=1584493993420> (2020.3.17. 검색)
- k)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3703072-947215745/격리해제를-규정대로-엄격히/> (2020.3.16. 검색)
- l)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3632971-557823003/각자-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방역대책-더욱-강구/> (2020.3.16. 검색)
- m) <https://kcnawatch.org/newstream/1584049240-998763881/국가적인-초특급방역조치-더욱-엄격히-실시/?t=1584339887257> (2020.3.16. 검색)



## 주요 통계



표 1. 2019년 1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 해역	10.2 (-1.1%)	6.2 (-0.8%)	16.4	-1.1%
북극해	2.8 (-0.4%)	5.9 (-1.4%)	14.7	-1.1%
발트해	8.8 (-1.0%)	11.2 (-0.6%)	20.0	-0.1%
아조프-흑해	6.9 (+0.1%)	12.7 (+0.2%)	19.6	+0.2%
카스피해	0.2 (-3.7%)	0.4 (-10.0%)	0.6	0.0%
합계	28.8 (-0.5%)	36.4 (-0.5%)	65.2	-0.5%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참고자료

a) <http://portnews.ru/news/288413/> (검색일: 2020. 2. 20)



표 2.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34,007.2	96,398.2	332,095.5	94,937.7	1,911.8	1,460.5
광물 제품	1,076,942.7	77,727.7	1,047,074.2	7,659.1	29,868.6	70,068.5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80,650.9	6,521.0	980,660.3	6,518.2	0,0	2.8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948.0	65,999.6	4,146.4	65,449.5	801.6	550.1
가죽원료, 모피 제품	4.3	1,996.7	3.9	1,976.9	0.4	19.8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4,515.8	8,035.2	93,897.7	7,866.8	618.1	168.4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89.9	16,198.3	177.0	15,447.5	12.9	750.7
금속 및 금속 제품	24,685.1	61,525.2	24,604.0	60,195.0	81.1	1,330.2
기계류	25,569.3	397,905.3	25,025.5	396,054.1	543.8	1,851.2
기타	299,120.4	36,747.3	229,688.3	36,371.1	69,432.0	376.2
합계	1,859,982.6	762,533.4	1,756,712.3	685,957.7	103,270.3	76,575.8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 (검색일: 2020. 2.20)

표 3. 2019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 생물	2	352.3	0	0	2	352.3	0	0	-	-	-	-
냉동어	72,542	1,929,847.9	583	47,563.8	72,542	1,929,847.9	583	47,563.8	0	0	-	-
연어류	12,387	322,964.7	-	-	12,387	322,964.7	-	-	0	0	-	-
넙치	723	29,457.4	-	-	723	29,457.4	-	-	-	-	-	-
가자미	1,332	14,774.3	-	-	1,332	14,774.3	-	-	-	-	-	-
가자미류	2,023	33,411.3	-	-	2,023	33,411.3	-	-	-	-	-	-
청어	16,164	86,939.7	-	-	16,164	86,939.7	-	-	0	0	-	-
대구	7,545	188,839.8	-	-	7,545	188,839.8	-	-	-	-	-	-
명태	23,728	896,113.1	-	-	23,728	896,113.1	-	-	-	-	-	-
농어	13	1,966.2	-	-	13	1,966.2	-	-	-	-	-	-
간, 곤이 (어란)	2,432	253,085.9	-	-	2,432	253,085.9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1,086	15,416.9	-	-	1,086	15,416.9	-	-	-	-	-	-
생선 필렛, 어육	542	153,137.7	238	4,006.8	542	153,137.7	238	4,006.8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14	1,497.1	79	5,314.0	114	1,497.1	79	5,314.0	-	-	-	-

갑각류	6,209	996,839.2	76	2,479.5	6,209	996,839.2	76	2,479.5	-	-	-	-
계류	5,278	909,332.3	-	-	5,278	909,332.3	-	-	-	-	-	-
조개류	6,979	109,743.5	-	-	6,979	109,743.5	-	-	-	-	-	-
가리비류	186	12,068.5	-	-	186	12,068.5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6,695	66,827.3	64	2,778.7	6,695	66,827.3	64	2,778.7	-	-	-	-
수산 무척추 동물	873	31,141.7	-	-	873	31,141.7	-	-	0	0	-	-
해삼류	247	6,785.6	-	-	247	6,785.6	-	-	0	0	-	-
성게류	626	23,814.4	-	-	626	23,814.4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검색일: 2020.2.20)